

# 성도의 벗 6 1983

23

6

표지 설명: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로버츠(1796-1864)는 1830년 대 후반에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곳의 여러 광경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 그림은 그가 1839년에 그린 예루살렘의 성채(다윗의 탑)의 그림을 바탕으로 한 목판화의 복사판이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 스펜서 더블류 킴볼
- 매리온 지 린니
-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마크 이 피터슨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토마스 에스 몬슨
- 보이드 케이 패커
- 마빈 제이 애쉬튼
- 브르스 알 맥콩키
- 엘 톰 페리
- 데이비드 비 헤이트
- 제임스 이 파우스트
- 닐 에이 맥스웰

교문

- 엠 러셀 벨라드 이새
- 로렌 시 던
- 렉스 디 피네가
- 찰즈 에이 디데이
- 조지 피 리

## 차 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단..... 1

주일에는 안되지요.....시푸아오 제이 마투아우토..... 6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매리 엘렌 에드먼즈..... 9

가정 복음 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선교사업 .....제이 에이 패리.....15

복음과 낭만적인 사랑 .....브르스 시 헤이픈.....23

축복사의 축복.....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29

경전 속의 여성들 .....캐들린 엘스트롬.....33

사랑의 스투.....케롤 파알리.....36

복음 귀조 .....론 옷츠.....42

선지자의 권세 .....황 충열 청주 스테이크부장.....45

지역 지도자 메시지 .....황 충열 청주 스테이크부장.....45

지역 소식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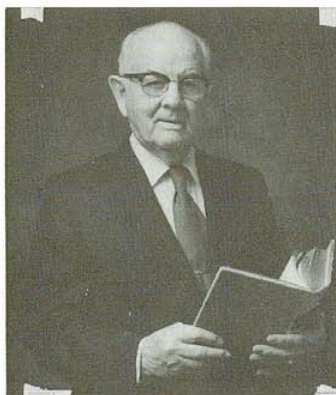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별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15호, 제19권 제6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킬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진 수  
 STOCK NO. PBMA0584KO PRINTED IN SEOUL, KOREA 6/83

© 198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이 메시지는 킴블 대관장님이 전하신 말씀에서 발췌하여 그분의 축복과 지시에 관한 내용을 다시 실은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서 우리의 영향권 내에 두신 지상의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는 일부 회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긴박함이 있으며, 이 긴박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성령께서 이 긴박한 사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보라, 발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그러므로 추수하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힘을 다하여 낫질하여 날이 다 가기 전에 거두어 자기의 영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 구원을 쌓아 둘지어다.” (교성 6:3)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 (교성 78:7)

오늘날 이 교회에서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가족이 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은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선교사로 봉사할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부부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선교 사업에 있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책임과 특권과 축복을 받을 선교사 연령

“나 는 우리가 모든 교회 회원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지식을 심어 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즉 만일 어떤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 교회 젊은이가 필요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모든 젊은이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면 우리와 그 젊은이들은 얼마나 강화되었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교회 회원들이 충실하게 부름에 응하여 우리는 선교사의 수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고 걸음을 빨리하며 주님의 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더 큰 힘으로 전진하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교회 회원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지식을 좀더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심어 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즉 만일 어떤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그것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 부름을 위하여 특별히 성별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은 복음을 자기 주변 사람에게 전할 의무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이 정당한 책임을 부여받기 바랍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그 까닭은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그런 연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이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별로 불편한 점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게 하라.” (교성 107 : 99) 또한 “보라……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 (교성 88 : 81)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가 명하셨으므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듣지 않기 때문에 가끔 하박국처럼 이렇게 울부짖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 1 : 2) 그리고는 주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1 : 5) 더 많은 장소에 더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니파이와 함께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파이일서 3 : 7)

우리는 자신의 편의보다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희생이 좀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감 영과 히버 시 킴블이 영국에서 어떻게 선교 사업을 했는가를 다시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두 사람 다 신병으로 앓고 있었고 지극히 가난했으나 봉사의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떠

**“나**는 주님께서 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친구와 친지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준비가 갖추어진 사  
람을 많이 두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게 되어 있었던 날 브리감 영은 너무 아  
파서 쓰러졌으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  
다. 히버 시 킴블이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  
려 했으나 그도 몸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저편으  
로 다른 형제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  
다. “이리 와서 브리감 영 형제를 일으키는  
것을 도와 주시오.” 그 다음날 그 두 사람  
모두는 선교 사업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권고했던 대로 우  
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  
도록 자신의 헌신을 더 증진시켜야 합니  
다. 세상에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굽주  
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  
의 진리와 사업과 친분을 맺는 일에 목마르  
고 있으나 자신이 무엇에 굽주리고 있으며  
무엇이 자신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지를 분  
명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증  
을 해결해 주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책임입  
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한가지 일이 있  
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와 우리 모두가 복  
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  
게 복음을 가르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열국의 문을 열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  
도록 진실되게 계속해서 간구하는 일에 함  
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  
로 우리의 친구와 친지들 가운데 주님의 교  
회로 들어올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을 많이  
두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 내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일  
에 도움을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저는 하나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압니  
다.”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간증입니다. 자신이 어떻  
게 그런 지식을 얻었으며, 그것이 자신에  
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대화 중에 언급한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친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일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여려  
분의 진실한 우정과 그에 대한 관심으로 인  
하여 여러분에 의해서 성장하고 교화된 사  
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기회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진실  
로 복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권능  
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에 이것이 필요  
합니다. 복음은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복음은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음 깊숙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변화합  
니다. 또한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나 장벽  
을 여는 모든 사람과 가족과 국가와 백성에  
게는 믿을 수 없을 만한 축복이 주어질 것  
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는 기쁨과 화평이 올 것이며, 복음의 가르  
침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에게

는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활에 화평과 기쁨을 가져다 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켜 주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 주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해주고 복음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키워 줍니다. 아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축복이 될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의 정신이 한 가족의 중요한 생활 방편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활력이 돌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자원을 관리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며 좀더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배우려는 배고픔을 느끼며 성령의 지속적인 속삭임과 인도를 받을 수 있게 성령과 함께 하려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준비시킴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선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이 나가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날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나는 이전에 우리는 가족과 교회 조직을 통하여 잘 훈련되고 준비된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젊은 이는 제대로 훈련받음으로써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사명이며,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젊은이가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행하고 싶다는 깊은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저축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자녀에게 저축하는 정신을 갖게 합시다. 또한 그들이 복음에 관하여 공부하고 기도하며 복음이 자신의 생활과 자기 주변 사람의 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스스로 살피는 정신을 갖게 합시다. 그들이 성장 기간 전체를 통털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서 복음 메시지의 기쁨을 토론하도록 도와 주는 경험을 쌓도록 합시다. 그들이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신학 연구원 및 모든 경험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여 합시다. 그들이 자기 생활을 깨끗하고 합당하게 지키게 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가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을 돕게 되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다면 우리의 준비는 많은 축복과 영적인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며, 곧 그것은 규칙적인 생활 방식이 될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도 그럴 것이며, 또한 정원회, 와드 또는 지부로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정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보다 신권 정원회나 교회 단체에 더 강력한 효과를 갖게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 사이의 기쁨과 우정과 사랑은 몇 배나 더 커집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아, 노래 불러 울려 퍼지게 하라.” (교성 128 : 22)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그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 (교성 82 : 14)

우리는 시온이 완전히 건설될 날을 바라고 있으나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나의 군대를 강대하게 만들고……하리라.” (교성 105 : 31)

우리가 힘차게 의욕적으로 주님의 군대를 확장시키는 일을 생각하노라면 브리감영 대관장의 예언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왕국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발전하며, 더욱 더 번성케 될 것입니다. 원수가 이것을 전복시키려고 할 때마다, 더욱 광범위하고 능력있게 될 것이며,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날로 증가될 것이며, 보다 널리 퍼지며 모든 백성에게 더욱 훌륭하게 눈에 띄게 될 것이며, 온 땅이 팽창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설교집, 1 : 203)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손이 이 사업의 진행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폭도들이 규합하고, 군대가 조직되고, 중상 모략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게, 고고하게, 독자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대륙으로 들어갈 것이며,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온 나라를 휩쓸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와는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 정사, 4 : 540)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호함과 암흑으로부터 기쁨과 화평과 복음의 진리로 가는 길에 빛을 비치게 하는 촛불 즉 지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우리의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의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가정 복음 교육 토론 시간에 다음과 같은 점을 발휘할 수 있다.

- ① 우리에게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서 더 많은 부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서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연령의 교회 젊은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족과 교회 조직을 통하여 잘 훈련된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다.
- ② 만일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면 그는 자기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으며, 특별히 성별될 필요는 없다.
- ③ 복음을 더 많은 장소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할 날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자신의 편의보다는 의무를 생각해야 한다.
- ④ 주님께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친구와 친지 가운데 교회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을 두셨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일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한다.

### 이야기해 봅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 가운데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하기 전에 그 가족의 가장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까? 정원희 지도자나 감독으로부터 그 가족의 가장에게 전하는 선교 사업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는가? \*

안식일  
27

가정의 밤  
28

## 주일에는 안되지요

시푸아오 제이 마투아우토

**내**가 사모아에서 자랄 때 나와 우리 친구들은 한번도 헤엄치는 것에 싫증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놀이였습니다. 나는 만 네 살이었을 때 마치 한 주일의 6일은 함께 놀기에 충분한 시간이 못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일요일에도 주일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러 가고 싶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나는 훌륭한 말일성도 가정에서 자랐으며, 훌륭한 말일성 어머니가 말과 행동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생생

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경전에 주의를 돌리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책에 있는 것을 암송하여 주위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욕심이 대단한 것을 아시고는 경전 구절을 읽고 암송하는 법을 배우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기회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여 대단히 흥분한 반응을 보였으므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이 두 책에 있는 구절을 네가 공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 너와 함께 하겠다……그리고는 성경과 물론경을 집어 드셨습니다.

내가 맨 처음 외워서 암송한 구절은 십계명과 시편 1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론경으로부터 리하이 가족의 이야기를 암송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면 배울 수록 경전에 있는 더 많은 원리가 자연스럽게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것은 부모의 모범에 의해서 강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매우 충실하게 복음대로 생활하셨습니다. 1962년 대학에 가



기 위하여 집을 떠날 무렵에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나의 내부에 잘 심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의 하와이 대학(현재는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에 가서 1964년 4월 2일에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까지 거기 있었습니다.(부친은 내가 매우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의 모든 경비를 대 주셨으므로 어머니의 사망은 나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에 나는 대학과 하와이에서의 생활에 매우 불만을 느끼고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나의 형인 투우알로파가 아리조나의 템피에 살고 있었으므로 아리조나 주립 대학에 지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의 입학 원서가 받아들여져서 1년 동안 템피가 나의 새집이 되었습니다.

1966년에 나는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솔트레이크에 도착하여 실업 대학을 알아보고 그 교과 과정에 몹시 마음이 끌렸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수중에는 약 2만원에 상당하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첫 3개월 동안은 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를 분납할 수 있는 조치를 받았으므로 나는 돈을 벌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솔트레이크에서 첫 주 동안은 매일 시간제로 일할 직장을 찾기 위해 30구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내가 접촉했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정규 직원을 원했으나 나는 몇몇 장소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시간제 일에 대한 지원서를 두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이내에 여러 곳에서 연락을 해 왔으며, 나는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모든 직장은 일요일에도 오후부터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매주일 성찬식에 빠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에게서는 정말로 절실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은 그때는 내가 비록 어렸지만 내가 배운 주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내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한 훌륭한 친구의 충고를 듣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일요일에는 한번도 일한 적이 없어. 교회를 빠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워. 주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너의 궁핍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 만일 지금 그 직장이 이 시간에 너에게 주신 유일한 직업이라면 그 직장을 잡는 것이 좋을거야.” 그러나 나는 그의 충고를 듣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일요일에 일하고 성찬식에 빠져도 주님이 용서하시리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너의 궁핍함을 참작하실 것이 틀림없어. 지금 당장 너는 재정적인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가 필요해. 네가 그 직장을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금전 출납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 나는 그 가게에 교육받으러 갔으며, 다음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오후에 나는 다시 그 친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생각이니? 학비를 내야 할 날이 곧 온 단 말이야.”

약간의 토론이 있던 다음 그는 다시 그 직장을 놓치지 말라고 권고했으며, 나는 그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의 권고가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일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지켜 온 이 계명을 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방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 후 나는 마치 어깨에서 짐을 들어낸 것처럼 매우 평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행복하고 화평스러운 느낌을 갖고 책을 들고 교실로 갔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시내의 한 큰 가게의 지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몇 주 전에 그 가게에 지원했으나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나는 그곳의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으며, 그 직장을 그만 두는 판매 서기의 자리를 대신 맡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바로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의 선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내가 계명을 깨뜨리도록 버려 두시지 않고 다른 직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는 동안 마치 인쇄된 큰 활자를 읽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메시지가 나에게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계명에 관한 한 타협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 보시기에 기쁘고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며, 또 마련하시리라는 것을 의심없이 압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매리 엘렌 에드먼즈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당시 막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 학위를 받았으며, 여러 곳에서 간호원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매 선교사로 나가려는 자매들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알고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여성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은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무언가를 할 기회로 택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제 일선에서 이와 같은 선입견을 지켜 보아 왔습니다.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선교사 숙소에서 가르친 여러 해 동안 나는 수백 명의 자매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이 자매들이 그들의 난관을 극복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매님이 설마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다른 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예요!”

지금 나는 매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 센터에 들어오는 수많은 자매 선교사들을 보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곳보다 더 아름답고 활기차고 지성적인 여성의 무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선교사로서 굉장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로서, 간호원으로서, 가정 경제 학자로서, 영양사로서, 비서로서, 시인으로서, 학생으로서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등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일의 값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영성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진실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 선교사들은 성신에 민감하며, 그의 인도에 잘 따릅니다.

“그는……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자매님, 이 훌륭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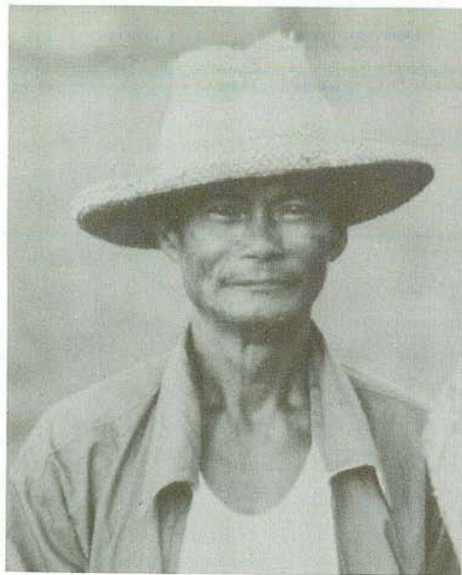
자매들은 전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강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관심을 가진 비회원을 발견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반면 일부 자매 선교사(및 일부 부부 선교사)는 추가로 다른 과제를 받습니다. 대관장단의 지침에 따라 자매 선교사들은 지도적 위치, 회원 훈련, 복지 봉사, 방문자 센터, 공보 관계, 선교 본부 직원, 교회 교육, 계보 사업 및 신전 사업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종류의 선교사 지명을 다음과 같은 간략한 이야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는 사람들에게 게임의 규칙을 가르칩니다. 부수적인 지명을 받은 선교사는 그들에게 게임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다른 지명을 받은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강화시키는 일을 돕기 위하여 파송됩니다. 그들은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기 가족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이 정원을 가꾸고 효과적인 가정의 밤을 갖도록 도움을 줍니다. 공과와 말 씀을 준비할 때 같이 일해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방 접종을 받는 일을 도와 줍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글 읽는 것을 가르치도록 도와 줍니다.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예산을 세워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이외에도 더욱 많은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들은 신권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능력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합당한 젊은 남자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 지침서에서는 여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느껴서는 안되고, 또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강요당하여서도 안된다. 더우기 선교 사업이 이들의 적령기 혼인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 이들을 추천해서는 안된다.”(교회 지침서, 제 21권, 62페이지) 자매 선교사들은 또한 평균적으로 장로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남자는 만 19세에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선교사로 나가는 나이가 든 독신 자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미망인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요소 즉 연령과 자신의 선택이 합쳐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에 매우 헌신적으로 임하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선교사로 나갈 것으로 기대받고 있거나 독촉받기 때문에 나가는 자매는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의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회생을 치루고 있으며,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그들의 회생으로 인하여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문제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들에게 꼭 성공해야겠다는 결의를 갖게



해주고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복돋아 줍니다.

귀환한 귀환 선교사들에게 저들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선교 사업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을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나의 인생과 나에게 더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의견에 나도 동의합니다.

나는 봉사하기 전에 선교 사업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단 선교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한국, 대만,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만나서 사랑하게 된 그 사람들이 내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단 한 사람이 나 단 하나의 경험을 찾아 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선교 사업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과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합쳐진 것입니

다. 그러나 나는 1964년 어느 아침의 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동반자 매리 제인 데이빈슨과 나는 그날 아침 필리핀의 케손시의 우리 구역에서 가가 호호 방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도록 주님께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비포장 도로를 걷는 동안 “15”번이라고 페인트로 글을 쓴 한 오렌지색 대문에 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대문을 두드려야 되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친절하고 온화한 얼굴을 가진 나이가 좀 든 필리핀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고, 우리는 가가 호호 방문할 때의 간단한 소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좀 주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라는 강한 느낌이 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에 관한 훌륭한 메시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다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으나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주저했으나 마침내 우리를 집안으로 맞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영어가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만큼 유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깊이 생각하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 이 훌륭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이야기에 더욱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다시 매우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사파하는 것 같은 음성으로 “자매님들, 꼭 한번만 더 들려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 는 시장에 가기 전에……하나님 아버지께……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사게 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는 것을 성신이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더욱 강하고 감미롭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느라고 고생했으며 오캄포 형제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구, 자매님 나는 여러분이 안 오시는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훌륭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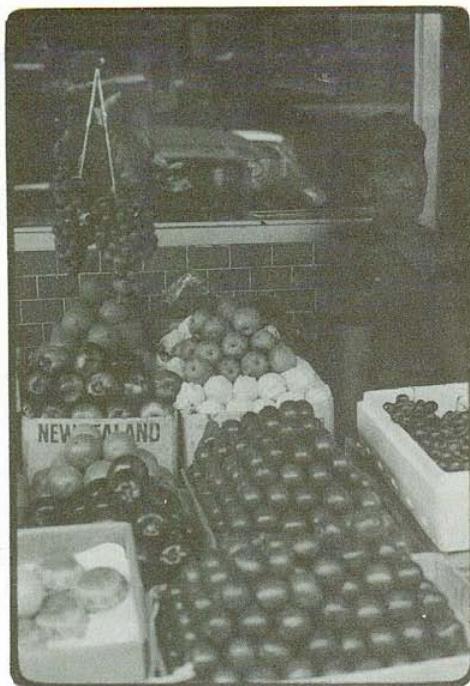
그는 우리가 준 소책자로부터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한자한자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여러 번 사전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대문을 지나 그의 집안으로 가는 동안 놀랍게도 오캄포 형제가 우리에게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후 곧 침례를 받았읍니다.

나는 중앙 자바의 세마랑에 있는 지부의 사마드 지부장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동반자와 나는 그가 지부 회원을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더 많은 능력을 얻을 때까지 그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읍니다.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된 선교사 자료나 훈련 자료가 극히 적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약 45분 동안 사마드 지부장을 만났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금식 헌금,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 및 기타 복음과 관련된 주제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곳의

언어를 구사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였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으며,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매님, 그저 준비하신 것을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가끔 제가 자매님들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성령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자매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바로 그의 이야기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번은 매우 어렵게 사는 어떤 사랑스러운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우리는 신전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전은 동경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것을 모두 판다면…… 그 순간 내가 몇 번 방문했던 그들의 초라한 집이 마음속을 스쳐 갔읍니다. 나는 그들이 도매체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을 팔려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대로 동전 하나라도 아끼면 55년 이내에는 신전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목이 메었으며 설령 무언가 할 말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 자매님, 나는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110세



가 될 거예요.” 이 글을 쓰는 나의 사무실 창을 통하여 신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은 한 상호부조회의 역원과 함께 방문 교욱에 관하여 토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가 거의 사죄하는 듯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자매님, 아시다시피 이 지부에는 전화가 있는 회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봐야 합니다.” 그 자매는 많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늘 아침이 되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꼭 누구를 방문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때로는 음식이나 그 이외의 무엇을

나는 목이 메었으며  
설령 무언가  
할 말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지고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화가 그런 순수한 하나님과의 교통에만 의존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은 훌륭한 영양 관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동안 필리핀의 한 훌륭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내게는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에 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적은 돈을 현명하게 쓰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사게 해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식료품을 집으로 가져오면 다시 그것을 잘 요리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음식을 축복해 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구입해서 요리할 수 있었던 이 음식으로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경우에는 음식 축복이 단순히 이제 먹겠다는 신호에 지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중앙 자바에는 매일 아침 그날 하루의 음

“우리가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 높이 들어 올려 주고  
 돕고 가르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있습니다.”

식을 장만하기 전에 쌀 한 손가락씩 저축하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한 손가락씩 플라스틱 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이 되면 그 봉지를 상호부조회로 가져갔습니다. 만일 누가 아프거나 오랫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자매들이 모임이 끝난 다음 그 자매를 방문하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쌀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이 자매들의 모범을 통해서 봉사와 헌납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물론경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인쇄될 때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나는 요셉 스미스와 그 외의 회원들이 마침내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 물론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줄 수 있게 되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시로부터 온 그 지역 출신의 인도네시아 자매 선교사인 내 동반자는 잠잘 때 자기 물론경을 베개 옆에 두고 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가끔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옵니다. 대만에 있을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으므로 나는 매일 만다린 중국어를 배우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가 호호 방문을 하는 동안 내가 설명할 차례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문으로 나올 경우 차라리 그것은 내 일생 동안 이어질 흥분의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누군가가 실제로 나의 몇 마디 이야기를 알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미국인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해군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물론 선교사이군요! 들어오세요. … 나도 물론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회원이 아니었으며 그 자매는 비활동 회원이었습니다. 십대의 아들과 딸이 침례는 받았으나 당시에는 둘 다 비활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다린 중국어로부터 영어로 말을 바꿔서 이 훌륭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도 마침내 침례를 받았으며, 두 자녀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고 지금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의 타이완에서 그 훌륭한 미국인 가족을 만나리라는 것을 그 누가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이런 일과 이외에도 많은 경험을 통하여 나는 선교 사업의 위대한 교훈 하나를 배웠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로부터 얻은 것만큼 그들로부터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 높이 들어 올려 주고 돕고 가르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 가정 복음 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선교 사업

**장**로 정원회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원회는 훌륭한 사람으로  
 packed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교회  
 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  
 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 지도자의 이와 같은 걱정은 교회 전체  
 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모든 와드와  
 지부에는 비활동 회원이 있으며, 또한 모  
 든 와드와 지부에는 비활동적인 형제와 자  
 매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도자들이 있  
 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  
 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어버린 은화와 잃어버  
 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셨  
 는데 이 모든 것은 지갑과 양 우리와 가족  
 의 일부였습니다. 한때 소속해 있었던 것  
 에서 상실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비유와 더불어 질문의 형식으로 한 가지 파

제이 에이 패리

제를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4, 8, 15장 전체 참조)

우리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임무와 함께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즉 가정 복음 교육을 주셨습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1964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교 사업은 현재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가정 복음 교육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가정 복음 교육은 교회 회원에 대한 선교 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964년 10월 연차 대회)

“재활동 촉진 사업”에 관한 훌륭한 말씀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비회원에 대한 선교 사업에서 개심이 필요한 것과 똑같이 “활동 촉진에 개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규적인 정원회 및 주일 학교 모임 이외에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미나에 초청받은 사람의 30퍼센트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합당하게 접근하면 열 명 중 여덟 명은 신권 지도자들이 그들의 집에 가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고무적인 통계 수치는 우리가 가만히 서서 비활동 회원을 염려하고 초조해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실행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시

해 줍니다. 형제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각 공예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목각 공예가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깎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작은 것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대회 보고, 1982년 4월)

이 과제는 큰 것이지만 일부 지도자와 가정 복음 교사는 정말로 작은 것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회원에 대한 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에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방법으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스테이크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지역에서는 정원회 지도자와 가정 복음 교사가 500 가정 이상의 비활동 회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전에 신전 준비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권고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매주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행하도록 강압하거나 부탁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 원리를 설명드리겠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80퍼센트의 가정 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가정 복음 교육의 형태의 선교 사업 부문의 혜택을 받고 있는 400가정을 뜻합니다.

그 밖에도 성공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비활동 장로는 사업상 일주일에 6일 밤을 자기 집을 떠나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그는 대개 토요일 밤과 일요일 낮에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그의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였느냐는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

했습니다. 처음으로 토요일 밤에 공과를 한 다음 그는 다음날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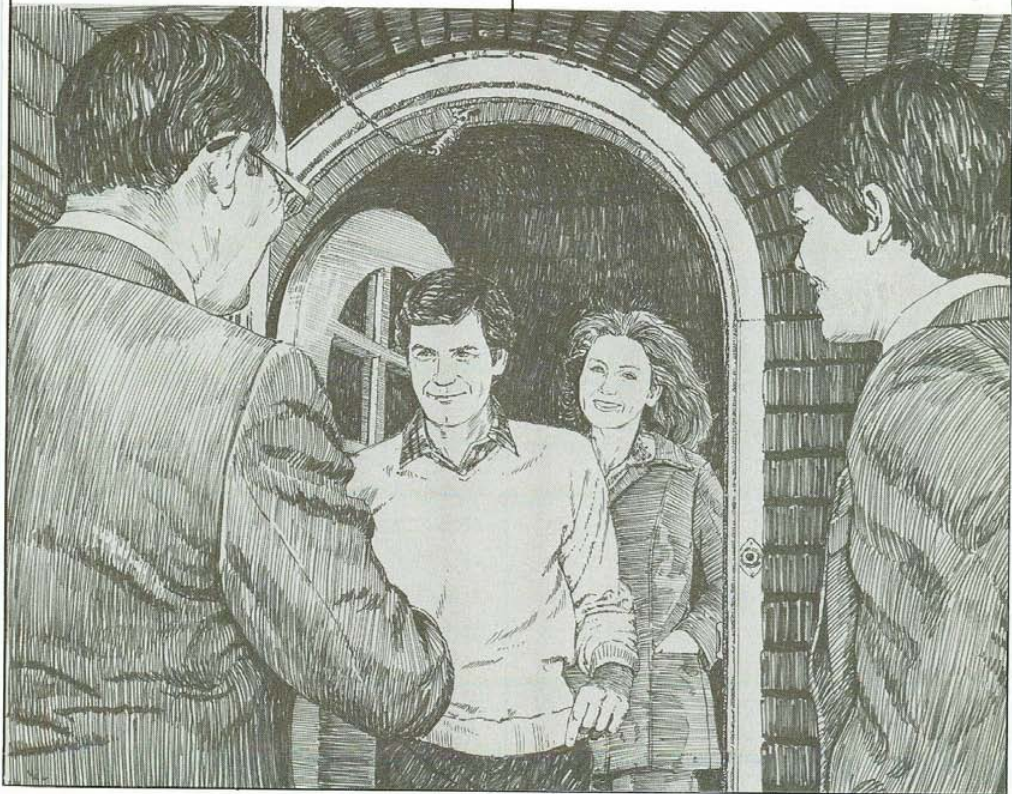
또 다른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주례로 가정 복음 교사를 집안으로 맞아들였으며, 점차적으로 그의 아내와 자녀가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직 수련 장로로 있지만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하여 다시 활동화된 장남은 지금 복음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신전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으나 아직 기꺼이 신전 준비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 복음 교사가 매주 그들을 가르치러 오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지금 그 젊

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그가 자신의 가정 복음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제님들에게 가족이 있고 바쁘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님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성공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른 수백(또는 수천) 가지 성공 사례에서 모두 한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됩니다. 기본적인 원리라면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모두를 저들에게 한꺼번에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가족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만일 이



## 가정 복음 교사가 가르치는 어떤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복음 교사가 방문했을 때 그 가족이 갖는 느낌입니다.

가족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가르친다면 부정적인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족은 방어적이 되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그만 뒤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성령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간증할 기회를 잃게 되고 진정한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비활동 회원에게 접근할 때 가정 복음 교사가 성공을 거두게 하는 기본 절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 공과를 준비하고 전할 때 성령을 간구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성령이 간증시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갖 진리를” 아는 것은 “성신의 권세로써” 이루어집니다. (모로나 이서 10:5)

2. 가족으로 하여금 가정 복음 교사가 강압적이 아닌 교수법을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가르쳐도 좋은지 알기 위하여 처음으로 문에서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가르침에는 여하한 강제성도 들어 있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시오. 나중에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도록 간곡히 부탁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또한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실 때의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자신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의 시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형제님, 오늘밤 우리는 형제님이 관

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동반자와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복음에 관하여 좀더 가르쳐 드리러 오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에는 어떤 강압이나 기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 원리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형제님이 그 원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정원회 지도자는 이런 방법을 적용했을 때 거절당한 적이 거의 한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반드시 그 남편과 부인에게 함께 이야기합니다. 만일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는 입에 담지도 않고 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나는 내가 접촉하는 비활동 회원이 쉽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한번은 가정 복음 교사를 요청하지 않은 한 형제를 방문했습니다. 나는 가정 복음 교사가 매주 그의 가족을 가르치기 위하여 와도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가 아니오라고 말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답을 묻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 문제를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지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갔을 때 나는 그가 나를 보고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첫 공과에 관하여 약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그가 거절하려 한다는 것을

**이**런 가르침의 기회가 단순히 끝나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가족이 배우기로 동의하면  
 그만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읍니다. 그것에 대하여 좀더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일주일 뒤에 오겠다고 말했읍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생겼읍니다. 나는 조금도 진척시키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그는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읍니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읍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시작한 후에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왔읍니다. 그 때에는 “저의 남편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을 지금 처음 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3. 비활동 회원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 단계는 “지적해 내서 공격하는” 교수 방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복음 생활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그 문제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당분간은 그것을 피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그들의 행동을 공격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집중하게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증거하시게 함으로써 그들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로써 어떤 수련 장로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거절했읍니다. 그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부인은 가정 복음 교사가 매주 가르치러 오는 데 동의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 남편이 스스로 몇 주 뒤에 그 문제를 제

기할 때까지는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읍니다. 3개월 뒤에 그들은 신전 준비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지금 그들은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담배 피우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으나 가정 복음 교사가 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읍니다. 이제 그는 “교회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에베소서 4:12) 위한 것이며 이미 온전하게 된 사람을 위한 잘 갖추어진 휴식의 집이 아니라는(닐 에이 맥스웰 장로, 1982년 4월 연차 대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4. 질문을 많이 하는 교수법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수많은 비활동 회원은 복음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교육 자료를 강의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시각 보조 자료가 공과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동시에 그 가족에게 얼마든지 질문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5. 언제나 가장이 그 가정을 잠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자기 가정에서 개회 기도와 폐회 기도를 할 사람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준비가 되면 스스로 기도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는 가정 복음 교사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권한을 행사하게 하십시오.

6. 가족이 기꺼이 받아들여려고 하는 이상의 것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성령의 속삭임을 잘 듣고 자신이 가르치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는 교사는 그 가족이 교사의 메시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즉

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한 가지 방법은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복음 교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공과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계시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과 순종에 따르는 축복, 복음의 배도와 회복, 물몬경 등입니다. 신전 준비 세미나 공과 교재, 복음 원리 교재 및 기초 복음반 교재에서 수많은 기본적인 공과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7. 그 가족에게 약속하도록 재촉하려 하면 안됩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단지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만으로도 비활동 가족에게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가족이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가정 복음 교사가 성신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그 가족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유타주에 있는 어떤 수련 장로는 기도하라는 부탁을 받거나 질문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은 자기 집에서 2개월 동안 복음을 배운 후에 신전 준비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직후에 그 남자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배우면서 성장한 결과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그들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장로로 성임되었으며 그 부부는 신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8. 교리와 성약 4편 6절에 있는 대로 주님이 그의 종에게 주신 권고를 따릅니다.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비,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 이

런 지침을 따르는 가정 복음 교사는 자신이 통계 숫자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변화가 느린 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잘 참을 것입니다. 그는 성급함과 그 가족이 성급하게 약속한 것은 자신이 찾는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꺼이 사랑과 회생의 수고에 참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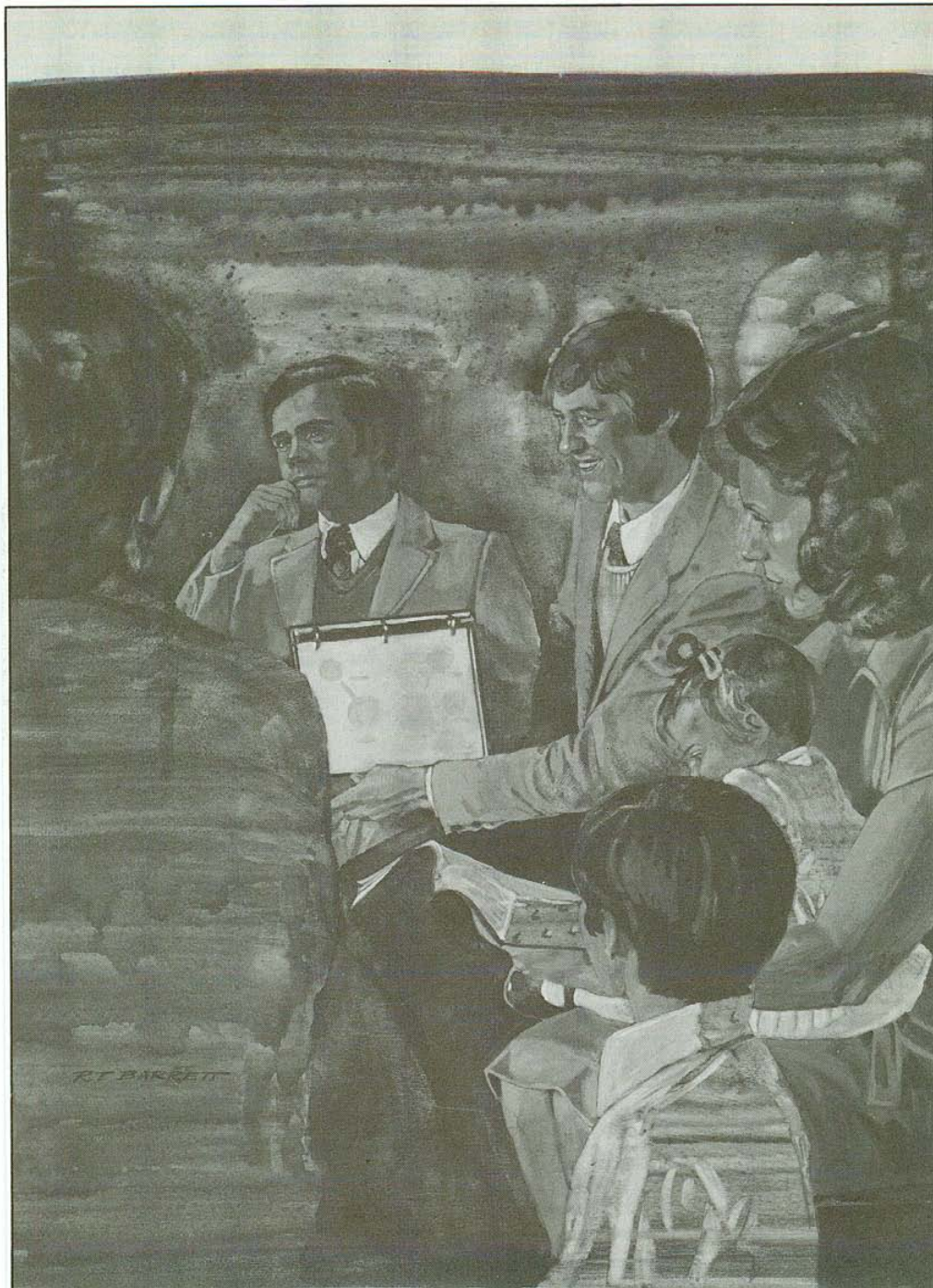
9. 마지막으로 가정 복음 교사가 가르치는 어떤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복음 교사가 방문했을 때 그 가족이 갖는 느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치한다는 것이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부가 가정 복음 교사가 매주 가르치러 오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매주 오에 따라 그 부부는 점점 더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있을 때는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것의 좋은 점은 이 방법이 그 가족을 현재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정확한 지점에서 그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전에 한 교회 회원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의 믿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은 모두 위선자”라고 말했습니다.

방문했던 정원회 지도자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생애에서 정당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이 지도자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는 이 방문자에게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도록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 일한 것이  
문자 그대로 내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되고 싶어했던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악감정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특정한 교회 회원의 행동을 언급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구세주의 사랑과 용서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용서하는 능력을 키울 훌륭한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갖추고 다시 와서 복음에 관하여 토론해도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언제라도 그의 집에 오면 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정 복음 교사는 그때부터 여러 번 그 가정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활동 회원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가정 복음 교사의 일이 항상 극적인 성공으로 끝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실은 이런 가르침이 단순히 끝나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족이 배우기로 동의하면 그만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들은 활동화되든지 안되든지 자기 생활에서 발전합니다.

효과적인 가정 복음 교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그 가족이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근거가 되는 “신성한 자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과정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받고 용납받는다

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정 복음 교육은 교사 자신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 복음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와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끈기있게 계속하고 그 가족에게 자신이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면 그들은 진보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가족에게 효과적으로 가정 복음 교육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가정 복음 교육에 참여하여 헌신할 때 정말로 성령이 이 일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 일한 것이 문자 그대로 내 생활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가 되고 싶어했던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



# 복음과 낭만적인 사랑

브르스 시 헤이픈



나는 오늘 너무나 중요하고 조심스러우며 거의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주제를 “복음과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나는 거룩한 땅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섬세한 것으로서 나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거의 모든 인기있는 책이나 영화나 잡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율법 가운데 하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세기 2:24)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고 되어 있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낭만적 사랑은 ... 인생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인생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은 심오하고 의미깊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충만한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없으면 가장 높은 단계의 해의 왕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영원한 사랑, 솔트레이크 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3년), 6페이지

이 주제의 또 다른 면은 엘마가 창녀 이 사벨을 따라간 방탕한 아들 코리엔톤에게 한 이야기에서도 물론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 네가 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거스리는 일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일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엘마서 39:5)

때때로 우리는 임신이나 낙태를 할 위험성, 원하지 않는 또는 난처한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 무서운 성병에 걸릴 가능성을 등 순결의 법의 이유로써 들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은 현존하는 결혼이나 가족을 파괴하는 것으로써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위에 언급한 것들로 인해 이 계명을 그 죄의 심각성에 있어서 무장 강도나 사기나 유괴보다 더 나쁘다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불순결이 살인을 빼고는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순결과 살인은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둘 다 최고로 신성한 권세와 관련되는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살인에는 그릇되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적 인 방법은 그릇되게 생명을 주는 것이나 생명을 주는 권세의 신성한 근원을 잘못 다루

“**나**는 우리 사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자유롭게” 느끼는 이 순간에도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계명의 이유를 우리의 한정된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이나 간증이나 감사하는 느낌이 너무나 깊이 들어서 그런 느낌을 말로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하고 의미 깊으며 때로는 신비스럽기까지 한 이런 귀중한 것을 충분히 알리고 애쓸 때 우리의 말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왜 자연은 그렇게 아름다우며 조화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들이 웃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까? 특히 우리 앞에서 웃는 그 어린 아이가 바로 자기 자녀일 때 우리 마음은 왜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몸소 모든 세대의 인간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 (교성 42 : 22), “너는 …간음하지 말라…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성 59 : 6)

나는 여러분이, 언급된 이 주제에 관하여 이번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님을 알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고 읽었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는 성에 관하여 참혹하게 그릇되고 사악한 개념으로 완전히 휩싸여 버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휩쓸어 버린 도덕이, 잠든 이 질병이 여러분을 무서운 수면 상태로 끌고 가지 않도록 사랑과 친절에 넘친 경고를 받되

틀림없이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나는 비교적 조용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도덕에 관한 특별한 주제에 있어서는 나는 우리 사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자유롭게” 느끼는 이 순간에도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에서 육체와 육욕이라는 단어 바로 다음에 “악마”라는 단어를 기록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값진 진주에서 “사탄이 저들에게 와서… 저들이…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좇는 자가 되었더라.”(모세서 5 : 13)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그 무서운 비극의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때 가인이 자신의 영원한 영혼을 댓가로 한 사탄의 일시적인 “이익”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덤벼 들어 마침내 그를 죽이니라. 가인은 자기의 행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르되, 나를 방해할 자는 없도다.”(모세서 5 : 32-33) 사실 가인이 “나를 방해할 자는 없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보다 더 속박되어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총관리 역원 형제님들이 우리에게 불건전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또한 왜 그들이 우리에게 현재 바다의 물고기기를 물이 둘러싸듯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약, 알코올, 저속한 음악 및 사악한 환경의 소산물을 피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의 끝에 가까이 와 있으며 허용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결의 법의 좀더 적극적인 면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이 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패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사랑을 위한 고속 도로로서 여기에는 제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손잡이가 있으며... 그 길에는 도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비록 단순한 순종이나 습관에 의해서 일지라도 교회의 표준을 따르는 젊은이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충족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영원한 사랑, 5-6페이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경전과 예언자들은 낭만적인 사랑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덕성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값지고 심지어는 신성하고 거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탄의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술책은 신성한 것을 야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하여 훌륭한 여성상의 꽃은 조롱당하고 만행당하고 결국에는 더러운 손에 의해서 산산 조각난 북적거리는 더러운 인생의 고속 도로 옆에 자리잡은 사창가에 있는 육욕적인 남자들의 술취하고 난폭한 웃음의 상상으로 암시된 타락한 성적인 표상을 내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원하고 잘 보호된 계곡 높은 곳에는 고귀한 미덕의 꽃이 때문지 않고 순수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꽃은 인내심과 순종과 평생 동안의 헌신 즉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끝없는 희생적인 충성의 댓가로 기꺼이 그 정상에 오르려는 용감한 소수의 사람을 위한 고귀한 상으로써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봉사 안에 거할 때만 우리 하나님의 봉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언젠가는 참된 연인이 될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운 생활의 기초에 근거를 둔 8가지 간단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에 대하여 육신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건물입니다. 이 육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장소가 되기 바라는, 즉 신전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이 육신은 또한 인간의 생명의 씨앗이 거하는 장소이며 자신의 선택된 동반자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경계선 안에서 그 생명을 양육하는 것은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둘째, 구혼할 때는 애정 표현에 있어 항상 정서적으로 정직하십시오. 때로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가에 관하여 평소의 자신답지 않게 신중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참된 사랑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키스하는 것을 보류하십시오. 언젠가는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신뢰하는 젊은 친구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 여러분은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랑과 그 사랑의 상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신에게 또한 친구에게 정직해

야 합니다.

셋째,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인이 되십시오. 젊은 남녀의 관계는 피라밋처럼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 피라밋의 기초는 우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쌓아 올라가는 것은 시간, 이해, 존경, 절제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 피라밋의 바로 꼭대기에는 로맨스라고 하는 반짝거리는 작은 신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피로한 여행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피라밋을 바라볼 때 아마 그가 제일 처음 보는 것은 그 꼭대기에 있는 반짝이는 보석 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감에 따라 그 로맨스라는 보석을 그렇게 높이 올려 놓기 위해 그 밑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 피라밋의 뾰족한 끝을 밑으로 하여 세우고 그 끝이 모든 것을 지탱하기 바란다면 그 피라밋이 그리 오래 서 있지 못하리라는 것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으며 그때는 이미 결혼한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기 수용과 자제력을 키우십시오. 다윗처럼 되지 말고 요셉처럼 되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하여 온갖 교활한 수법을 다 동원했을 때 요셉은 그녀의 종으로서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기록을 보면 요셉이 단지 “도망하여 나가매”(창세기 39: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기려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수년 동안 하나님에게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인지 유혹을 처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너무나 크게 키웠습니다. 비극적이었

던 것은 그가 스스로 악과 더불어 희롱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결국 그는 파멸에 빠졌읍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의 집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멀지 않은 곳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는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심히 아름다와 보였읍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하여 나가지 않았읍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으며 그 여인이 다윗에게 왔읍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 왕에게 있어서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읍니다. (사무엘하 11장 참조)

구혼에 있어서 참된 사랑의 기초가 점점 커진다고 느낄 때라도 자신의 열정을 억제함으로써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살 가능성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마지막 선만 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이든지 용납될 수 있다는 그릇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 행동이 곧 다음 행동으로 걸잡을 수 없이 이끌려 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육신에 손을 대는 것은 중요한 의미에서 순결이라는 성소에 의해서 거룩하게 지켜지는 성적인 행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만일 사랑과 욕정을 구분하는 선이 어디인지 의문이 생긴다면 사랑의 편에 줄을 그으십시오. 절벽에 걸코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읍니다.

다섯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키려 할 때 성령을 지속적인 안내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생활하십시오. 자신이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과는 절대로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안될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면 이미 정서적으로 빠져든 후에는 자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일과 그 영원한 동반자와의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성신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다른

**경**전과 예언자들은 낭만적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덕성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게 될 만큼—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인도의 열쇠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적절한 기도를 드리는가 또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의 열쇠는 단 한 단어의 합당성에서 발견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잠깐 경전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교리와 성약 63편 16절을 121편 45, 46절과 비교해 보시도록 권고합니다. 이 두 성구의 처음 성구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나 마음에 간음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심각하게 해로운 세 가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성령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신앙을 부인할 것입니다. 셋째, 두려워 떨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에 욕정이 가득 찰 때의 이 세 가지 결과와는 정 반대로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할 때에는 121편 45절에 있는 대로 어떤 세 가지 일이 생기는지 유의하십시오. 성신이 변치 않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신권의 교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그리고 육욕적인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대조적으로, 마음이 덕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의 신임이 두터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습관을 피하십시오. 또한 자신이 사교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시간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낙담은 자신을 찾으려 할 때 우리 모두가 부딪치는 불안정의 형태일 때가 흔히 있습니다. 사교적인 성공을 통하여 오는 자신의 가치에 관한 외적인 인정이 없는 가운데 자신의 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회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류의 자신에 대한 회의심은 결혼했거나 독신이거나 우리 인생의 모든 날에서 우리 대부분에게 따르는 큰 문제 중의 한 부분일 따름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상징을 잘못 찾습니다. 그런 상징은 인기있게 된다는지 부자가 된다는지 또는 자기 주변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자신의 육체를 부당하게 자유로이 다루는 것을 허용하면 순간적으로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불쾌한 느낌만 들게 하는 습관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단지 누군가가 자신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하여 좋지 않은 결혼 상대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애에 대한 주님의 인정만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뜻을 알고 합당하게 생활하려 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함

께 작용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28 참조)

여러분의 결혼 시기가 인생의 황혼기에 가서야 올 수도 있으며 그럴 때는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두 배나 더 값질 것입니다.”(영원한 사랑, 17페이지) 가령 결혼 시기가 이 생에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이 충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개념에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곱째, 간통과 사통을 피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동성 연애 행위와 낙태를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심각한 범법입니다. 낙태하도록 압력을 넣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도록 돕기만 해도 그 사람은 선교 사업을 할 특권을 박탈당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 재판에 회부되어 교회 회원 자격이 위협해 질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만일 과거에 어떤 불행한 경험을 통하여 이때까지 이야기한 종류의 도덕적인 범법을 했다면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경전 구절 가운데서 이사야의 말씀보다 더 영광스러운 약속은 없으며 그는 마치 주님 자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이사야 1:18-19)

만일 그 범법이 심각한 종류의 것이면 감독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완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몹시 무서운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런 방법에 의하여 목적과 현재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좀더 희망적이고 승화시켜 주는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독에게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의문에 관해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본 제이 페더

스토운 장로의 말씀을 권해 드립니다. 그분은 198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심각한 범법에 대한 회개 과정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솔직하고 사랑에 넘치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기억할 만한 부분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교회의 징계까지도 받아들일 용기와 신앙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페더스토운 장로님의 생각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아마 심각한 범법의 사례를 천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 범법자가 사무실을 떠날 때마다 나도 책상 위에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들은 내가 만난 가장 기독교인다운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없는 곳에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그들의 죄가 흠날리는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이사야 1:18 참조), 주께서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교성 58:42 참조)

오늘날의 사회적인 상황과 자신의 편안한 느낌을 위한 올바른 통로를 찾는 동안 자신에게 부과해야 하는 한계에 관하여 이때까지 경고로써 이야기한 이 모든 것에 덧붙여서 나는 여러분이 또한 낭만적 사랑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이 가장 승화시키며 영속적인 종류의 소망과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님이 의도하신 방법대로 연인이 되는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호주, 렉스버그의 교회 재단인 리스 대학 학장이다.) \*

# 축복사의 축복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축복사의 축복은 이 축복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한 충실한 교회 회원에게 오는 매우 독특하고 훌륭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에 속하는 축복은 우리 개개인에게 승영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수많은 축복과 마찬가지로 이 축복도 그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책임은 일차적으로 각 개인과 그 가족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깊게 자신의 축복문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간증은 강해지고 강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에는 더 큰 목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조건을 정확히 밝히든 안 밝히든 간에 어떤 특정한 자질과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축복은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충실함을 조건으로 하여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전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스

테이크에는 최소한 한 사람의 축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축복사

축복사라는 위대한 부름을 받고 성임된 충실한 분들에게 찬사를 돌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분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선택된 사람들은 하늘의 영감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합니다. 축복사들은 주님을 대변하여 권능을 갖고 말할 자격이 있으므로 단순히 어떤 사람을 위한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축복을 줄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사의 직분은 벨기세때 신권의 위대한 신권 직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축복사의 직분은 행정 집행을 하거나 권고하는 직분이 아니고 축복을 주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축복사의 여성 동안 계속될 신성하고 영적인 부름입니다. 우리의 축복사들은 모든 축복이 영감받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속에서 합당하게 살며 그 부름에 완전히 헌신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합니다.



E.T. BARRE



## 축복

축복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자신이 느끼는 영감에 따라 주는 축복과 영적인 은사와 약속과 권고와 훈계 및 경고와 함께 영감을 받아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혈통을 밝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축복사의 축복문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주 읽어야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지만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고와 약속과 지식에 대한 신성한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이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축복문이 상세히 다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하면 안됩니다. 선교 사업이나 결혼 등과 같은 인생의 큰 사건이 그 축복문에 빠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축복문도 짧은 것으로써 종이 한 장의 한 페이지의 약 4분의 3밖에 안되는 한정된 것이지만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완전히 적절하고 그야말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자신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의 길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축복사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짧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타자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현재까지 내 인생을 예언해 주었습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북크래프트사, 1965-76, 5 : 152)

## 성취

존 에이 윌소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 생에서 또는 다음 생에서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된 축복이 이 생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있어서 인생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활동이 영

원히 계속되며 지상에서의 일이 하늘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은 그의 거룩하신 목적에 일치할 때 그 축복이 실현되게 하실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율법에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간증입니다.”(*증거와 조화*, 북크래프트사, 1960, 323페이지)

이것은 우리 부친의 축복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그는 축복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딸”을 축복받게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친과 모친은 다섯 아들의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딸은 없었지만 그들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신 것은 물론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을 때 우리 아버지의 손녀들이 음식 장만하는 것과 어린이 및 노인을 돌보는 것을 보았으며 아버지의 축복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진실로 수많은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친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사는 이 생의 범위를 넘어서 내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세와 영원을 구분하는 선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축복사는 자신이 줄 축복은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축복은 주님이 주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아시며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현재의 능력과 잠재 능력을 아십니다. 우리의 축복사의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잠재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가 낙심할 때 용기를 주고 두려워할 때 힘을 주고 슬플 때 위안을 주며 영적으로 약할 때 우리를 들어 올려 줄 수 있습니다.

## 아버지의 축복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

다. “성약 안에서 자녀를 낳은 부모는 누구든지 그 자녀의 축복사이며 자신이 갖고 있는 신권의 권능으로 그의 자손을 축복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증거와 조화, 321 페이지)

대관장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을 주어야 한다는 가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축복사의 축복과 관련하여 혈통을 발표하는 것은 스테이크 축복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의 축복을 주면서 영감에 의하여 혈통을 발표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군에 입대하거나, 학교나 선교 사업으로 집을 떠나게 되거나, 기타 다른 적절한 경우에 가장의 축복을 자녀에게 줄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가장의 축복은 가족 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나 교회 기록 보관소에는 보존되지 않습니다.”(교회 지침서, 46페이지)

#### 이스라엘 권속으로의 입양

오늘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야곱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하여 어떤 축복이든지 박탈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바울은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권속으로 입양되는 것에 관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로마서 8:9)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로마서 9:4)라고 하였다.

베냐민 왕은 충실한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하여... 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며 영적인 출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모사이야서 5:7)

이스라엘의 권속으로서 축복이 혈통을 통해서 오든지 영적인 입양으로 해서 오든지 실제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혈통이 핏줄에 의한 것이든 입양에 의한 것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증거와 조화, 322 페이지)

아브라함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아 일어서서 너를 저들의 조상으로 축복하리라.”(아브라함서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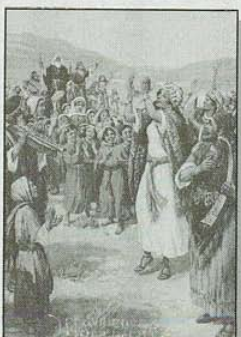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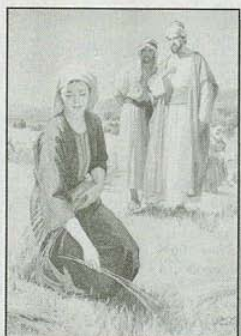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신이 아브라함의 문자 그대로의 자손에게 임할 때에는 조용하여, ... 이방인으로서 옛 혈통을 없애고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은 성신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5페이지

만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또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그 길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사도행전 9:15) 주님의 그릇입니다. 축복사와 부친이 주신 축복에 합당하게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 가족의 축복사를 통하여 또한 성임된 축복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합당하게 살며 그 축복을 간구하고 또한 이 훌륭한 축복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내는 데 온 힘을 다하기를 간구합니다. \*

# 경전 속의 여성들

캐들린 엘스트롬



**경**전에 나오는 여성 가운데 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밑에 주어진 힌트를 보고 역사의 여 주인공을 알아 맞추도록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힌트 가가 가장 어려우며 힌트 다가 가장 쉽습니다. 힌트를 가나 다 순으로 내려가면서 읽되 지금 읽고 있는 힌트 밑에 힌트는 모두 보이지 않게 가립니다. 각 문제마다 그 여성을 올바르게 알아 맞추기 위하여 세 가지 힌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읽어야 했느냐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점수를 계산합니다. 힌트 가=3점;가와 나=2점;가,나,다,=1점. 잘못 알아 맞추었으면 위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점수를 감점하고 다음의 힌트로 넘어갑니다. 어림 짐작하다가 감점당하게 됨으로 모험을 하기 싫으면 틀림없이 올바르게 알아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힌트를 다 읽도록 하십시오. 최고의 득점을 얻게 해줄 작전은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좋습니다. 36점 만점을 받는다면 정말로 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2점 이하를 받는다면 이 훌륭한 여성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좀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퀴즈를 이용하여 팀 대항을 하고 싶으면 지금 자기 차례인 팀이 잘못 알아 맞추거나 힌트 가나 나에서 대답하지 않을 때 반대 팀이 그 인물을 알아내게 하십시오. 만일 반대 팀이 잘못 알아 맞추면 현재 자기 차례인 팀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 ①

가. 나는 성경과 물문경에 모두 내 이름이 나옵니다.

나. 하늘의 천사가 내가 특별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1:16, 18-25; 누가복음 1:27-56, 2:15-19; 니파이서 11:13

-20; 모사이야서 3:8; 엘마서 7:10)

## ②

가. 나는 여 선지자였으나 주님의 택하신 예언자에 대항하여 말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 나는 우리가 애굽 군인으로부터 구출된 뒤에 기쁨의 노래로 이스라엘 여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다. 나는 바로의 딸이 내 남동생을 발견하고 양자로 삼을 때까지 나일 강 위의 상자에 실린 동생을 지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3-10, 15:20-21; 민수기 12:1-15)

## ③

가. 나는 성경, 물문경 및 값진 진주에 내 이름이 나옵니다.

나.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함께 걸었습니다.

다. 나는 이 세상의 첫 여인입니다.

(창세기 1:28-30, 3:7-16, 20; 니파이일서 5:11; 니파이이서 2:19; 모세서 4:12-14, 22, 26, 5:4)

## ④

가. 나는 첫번째로 교리와 성약에 내 이름이 나오는 여성입니다.

나. 나는 선택된 여자로 불리웠습니다.

다. 나는 이 경문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와 결혼했습니다. (교성 25:1, 3, 5)

## ⑤

가. 내가 “나이 많”을 때 한 천사가 나에게 특별한 한 아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우리 남편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시현을 보았습니다.

다. 내 아들은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3; 누가복음 1:5-22)

## ⑥

가. 다윗 왕과 구세주가 나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나는 남편이 죽자 시어머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살기 위해 갔습니다.

다. 나는 시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도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룻기 1:4-7, 16-9, 4:17; 마태복음 1:5-16)

⑦

가. 나는 아버지가 보신 특별한 시현에 의해서 복음으로 개종했습니다.

나. 나는 우리 여주인이 주님의 영에 압도당한 후 땅에 쓰러졌을 때 그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 나는 라모나이의 왕후의 시녀였습니다. (엘마서 19:16-18, 28, 29)

⑧

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왔으며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다. 나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36-41)

⑨

가. 나는 새 땅을 찾아 남편과 함께 여행하기 위하여 집과 친구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 나는 남편이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며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었으며 우리도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다. 우리 자녀는 두 민족으로 나뉘어져서 약속된 땅에서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했습니다.

(니파이일서 2:4-5, 5:1-3; 야곱서 1:13-14)

⑩

가. 나는 바사와 메대의 왕후가 된 유

대인 여자였습니다.

나. 성경 가운데 책 한 권이 내 이름을 본딴습니다.

다. 나는 우리 백성이 살해되는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스더 2:5-7, 10, 17, 7:3-6, 8:3-17)

⑪

가. 나는 우리 남편이 주님의 영에 압도당하여 죽은 것처럼 누워 있는 침대 옆에 이틀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 주님의 사자로부터 복음을 들은 후에 나도 성령에 압도당하여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 복음으로 개종한 내 시녀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엘마서 19:2-5, 11-12, 14, 29-30)

⑫

가. 구세주께서 나로부터 일곱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나. 나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 나셨다고 말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9-11; 요한복음 20:1-2, 11-18)

답: 1. 막달라 마리아, 2. 레이맨인 왕후이며 라모나이 왕의 부인, 3. 에스더, 4. 새라이아, 5. 다비다 또는 도르가, 6. 에이비시, 7. 룻, 8. 엘리사벳, 9. 엠마 스미스, 10. 이브, 11. 미리암, 12. 마리아

을 상기시켜 주었다.

제2부, 재능 발표 순서에서는 각 와드와 지부의 자매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민속 무용, 에어로빅 댄스, 중창, 그리고 의상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대부분의 순서에 미혼 자매들이 참여하였지만 결혼한 자매들의 재능 발표도 많이 눈에 띄었다. \*

## 영동 스테이크

영동 스테이크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영동 와드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다. 김 금재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각 와드, 지부별로 구분된 색 리본을 달고 무용, 연극, 춤, 시 낭송 그리고 합창 등으로 흐뭇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글짓기 대회의 시상을 살펴보면 예비쉬의 상에 방배 지부 소속의 어 민순 자매, 세라비아 상에 은마 지부의 김 금재 자매, 예비쉬의 상에 모진 지부의 김 영애 자매 그리고 룯의 상은 반포 지부 소속의 이 은정 자매가 각각 수상하였고, 꽃꽂이 대회의 1등 상은 영동 와드의 남 순애 자매가 차지하였다. 이날 상호부조회 특별 상은 은마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김 순남 자매가 받았는데 이 상은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이고 헌신적인 자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었다. \*

## 한국 서울 서 선교부 신임 선교부장 에드윈 에이치 젠슨



에드윈 에이치 젠슨 선교부장(40세)은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토론을 가르쳤다.

그는 유타주 로간시에서 밀포드 해롤드 형제와 릴라 매이 헨슨 젠슨 자매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966년 12월 28일 로간신전에서 아브나 로울링즈 자매와 결혼하여 현재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젠슨 선교부장은 유타 주립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69년 이래 캐쉬 컨트리 스쿨 디스트릭(캐쉬 공립 학교 지역)에서 교사로 제직했다.

또한 농장일을 돌보기도 하였다. 그는 유타주 로간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했으며 감독,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 위원장, 스테이크 선교부장 및 스테이크 청남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62년부터 1965년까지 한국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젠슨 자매는 아이다호주 프레스톤에서 다윈 형제와 엘지 샤프 로울링즈 자매의 딸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고문,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와 상호부조회 교사를 역임했다. \*

